

전주 지역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의 역할에 대한 논의*

조성욱**

A Discussion on the Role of Jeonju Stream in History Development in Jeonju Region*

Sungwook Cho**

요약 : 전주(全州)가 역사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 지역의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全州川)의 유로변화가 중심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전주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내부 하천(노송천, 인봉천, 모래내, 아중천)과 외부 하천(전주천, 삼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주 구시가지(전주읍성 지역)의 평탄지 지형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하천은 전주천이다. 둘째, 「전주부사(1943)」에 기록된 전주천의 서천(西遷) 가능성은 타당성은 있지만, 견훤도성 축성 시점(900년)과 직접 관련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전주 구시가지 지역은 박상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전주천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약 1m 정도의 사력층과 그 위에 약 1.8m의 점토질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부 구릉 지역(노송동)에서 풍화토가 서쪽(전주천 방향)으로 사면이동하여 그 위에 1.5m가 퇴적되었다. 넷째, 견훤도성 축조시기인 900년경 전주천은 이미 안정화되었고, 도성 축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류인 노송천이었다. 다섯째, 고토성(古土城)에서 전주천 방향으로 축조된 일자성(一字城)은 북쪽 방향에서 구시가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 또는 모래내의 범람으로부터 구시가지 지역을 보호하는 하천제방, 풍수지리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범람하던 전주천은 1940년대에서 2000년경까지 인공제방 축조와 직강화 공사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전주시의 지역발전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요어 : 전주천, 유로변화, 퇴적 작용, 노송천, 견훤도성, 구시가지 지역, 범람, 인공제방

Abstract : Since the Unified Silla Period, when Jeonju began to appear in history, the impact of flow change of Jeonju Stream and change of central region, it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existing discus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s, first, the rivers flowing through the Jeonju area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rivers (Nosong Stream, Inbong Stream, Morae Stream, Ajung Stream) and external rivers (Jeonju Stream, Sam Stream). Among them, Jeonju Stream is the river that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flatland in the old downtown areas of Jeonju. Second, the possibility of moving to the west of Jeonju Stream recorded in 'Jeonju Busa (1943)' is valid, but it is unreasonable to directly relate it to the time of construction of Gyeonghwon Castle (900 years). Third, in the old downtown area of Jeonju, schistose granite forms bedrock, and a sand layer of about 1m and a clay layer of about 1.8m are formed on it by the sedimentation of Jeonju Stream. In addition, in the eastern hilly area (Nosong-dong), the weathered soil moved to the west (the direction of Jeonju Stream), and 1.5m was deposited on it. Fourth, Jeonju Stream was already stabilized around 900 years,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Gyeonghwon Castle, and it was Nosong Stream, a tributary, that influenced the construction of Castle. Fifth, various estimates have been made on the purpose of the shape of a Line Fortress built in the direction of Jeonju Stream from Old Fortress, which may have been defense facility to protect the old city area from flooding from the north or the influence of Feng shui. Sixth, Jeonju Stream, which was flooded, was controlled by artificial embankment construction and direct reinforcement work from the 1940s to 2000,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 Jeonju City.

Key Words : Jeonju Stream, Flow change of stream, Sedimentation, Nosong Stream, Gyeonghwon Castle, Old downtown areas, Flood, Artificial embankment

*이 논문은 202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I. 서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의 역사 전개에서 구시가지 지역(행정동으로는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 전주읍성과 주변 지역)의 평탄지 형성(해발고도 40m)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천(全州川)의 유로(流路)가 현재와는 달랐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 즉, 현재 전주천은 한벽당 → 다가산 → 진북동 → 덕진동 → 추천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과거에는 한벽당 → 오목대 아래 → 구 전라선 철도선 → 덕진연못 → 추천으로 흘렀다가,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흐름이 되었다는 추정이다(전주부사, 1943). 그런데 이러한 전주천의 과거 유로가 동쪽 노송동의 구릉지역에 위치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백제 시대(900-936년)의 견훤도성 앞으로 흘러도성의 서쪽 외호(外濠) 또는 해자(垓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논의는 시기적으로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전주천의 유로가 변화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주천의 유로변화와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후백제의 견훤도성 시기를 연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합성에 의문이 있다.

전주천의 유로변화와 서천(西遷)에 대한 논의는 1905년에 발행된 「완산지(完山誌)」에서 ‘예전에 남대천(南大川, 전주천의 부분명으로 한벽당 ~ 다가산 구간, 전주읍성의 남쪽을 흘러 남대천이라고 부름)이 오목대 하류를 지나 흘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기록이 시작점이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과거 전주천이 한벽당(한벽루) → 오목대 아래 → 철도선(전라선) → 덕진연못 → 추천으로 흘렀다는 추정을 하고, 다양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전주천이 후백제 시대에 「전주부사」의 추정과 같은 유로로 흘렀다면 당시의 전주천은 동쪽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견훤도성 추정 지역, 900년)과 서쪽 평탄지인 중앙동 및 풍남동 지역(전주읍성 지역, 1388년)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후 전주천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평탄지가 형성되고 그곳에 전주읍성이 축조되었다는 논리이다. 즉, 견훤성이 축조된 900년부터 전주읍성이 축조된 1388년의 488년 사이에 전주천의 서천과 함께 구시가지 지역의 평탄지가 형성되었다는 추정이다.

전주천의 서천 논리는 현재 전주 구시가지의 평탄지를 구성하는 사력층의 형성 원인과 과정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전주천의 유로변화를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추정하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즉, 전주천이 한벽당에서 오목대를 지나 덕진연못 방향으로 흘렀던 시기와 후백제의 견훤도성 또는 그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평탄 지역인 전주의 구시가지 지역은 과거 언젠가 하천에 의해 사력층의 퇴적과 함께 평탄지가 형성된 것은 확실하지만, 지질시대에 있었던 자연조건의 형성과 사람들의 집단적인 삶이 전개되었던 역사시대의 자연조건을 시기를 압축하여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나타난 문제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전주천의 서쪽으로의 유로변화(西遷)와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 지역의 역사 전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전주 지역 하천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주천의 서천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퇴적층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여,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과 이 지역의 역사적 전개에서 전주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주천의 유로변화(流路變化)에 관한 기존 논의

1. 전주 지역의 하천 특성

전주시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모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만경강 수계에 속한다(그림 1). 전주시를 흐르는 주요 하천은 내부 하천과 외부 하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 하천은 기린봉과 승암산 산체(山體)에서 발원하여 전주천과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노송천, 인봉천, 모래내(건산천), 아중천 등이 있다. 그리고 외부 하천은 전주시역 밖에서 발원하여 전주시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천)이 있다. 이 중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천은 전주천과 지류인 노송천, 인봉천, 모래내이다. 아중천, 삼천, 소양천은 1945년 이후 전주시의 시역 확장으로 포함된 하천이다.

하천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외부 하천인 전주천은 남쪽의 임실군과 완주군의 경계인 슬치(270m)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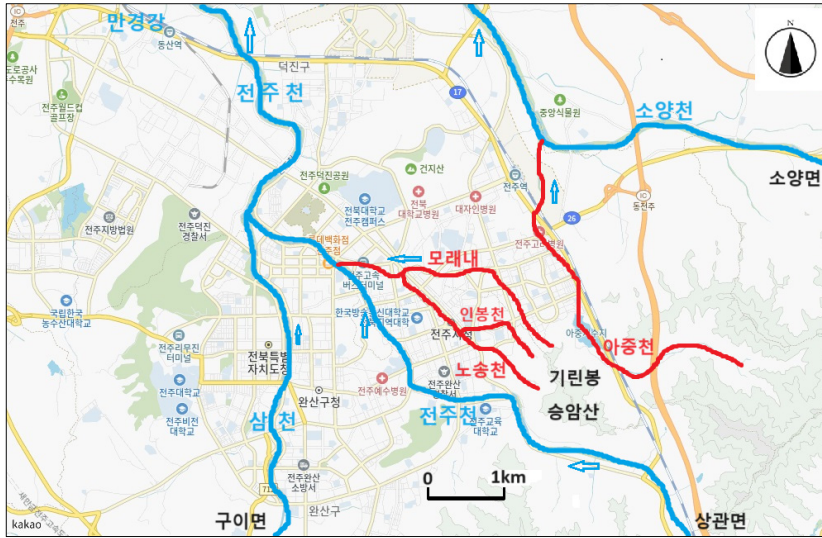


그림 1. 전주시의 하천 흐름(Kakaomap)(외부하천: 전주천, 삼천/내부하천: 노송천, 인봉천, 모래내, 아중천)

하여(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텃골), 전주시 방향으로 북진하여 전주시를 통과하고, 삼례교(국도 1호선, 전주시 화전동과 완주군 삼례읍의 경계)에서 고산천 및 소양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이 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전주천은 과거부터 1980년대까지 전주 지역의 역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래 하천인 삼천은 전주천과 서산의 산줄기 서쪽 너머를 흐르는 하천인데, 모악산(793.5m) 남쪽에서 발원하여(배재와 구이면 백여리), 구이저수지(1963년)를 지나 북쪽 방향으로 흘러 추천대(서신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부근)에서 전주천으로 합류한다. 삼천과 합류한 전주천은 황방산(216.6m)과 가련산(70.2m) 사이를 지나 만경강으로 흘러간다.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전주시역이 된 삼천 유역은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농업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삼천 서부 범람원 지역을 중심으로 서부 신시가지 개발(2005년 전북도청 이전)과 함께 시가지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내부 하천으로는 노송천, 인봉천, 모래내(건산천), 아중천이 있는데, 모두 기린봉(271m)에서 승암산(306m)으로 연결되는 산체(山體)에서 발원한다. 기린봉(북)과 승암산(남) 사이(약 1.5km)에는 서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북쪽 계곡(기린봉 아파트 방향)으로 흐르는 물은 인봉천이고, 남쪽 계곡(원산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흐르는 물은 노송천이다. 이 두 물

줄기는 전주교 부근(현무 2길과 현무 3길이 만나는 지점, 삼호저축은행 앞)에서 합류한다. 그리고 기린봉의 북쪽으로 흐르는 모래내(건산천)는 북문교(과거 한진고속터미널)에서 노송천과 합류하여 전주천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동쪽으로 흐르는 아중천은 전주천이 아닌 진안군과 완주군의 경계에서 시작된 소양천으로 합류하여 만경강에서 전주천과 합류한다.

노송천(약 4.5km, 일명 기린봉천, 관암교천)은 승암산의 동북쪽 아래 성황사 샘물에서 시작하여, 전주 군경묘지와 낙수정 마을을 지나 천주교 전주교구청 남쪽으로 흘러, 기린로 아래를 지나 전주교 부근에서 동쪽에서 흘러오는 인봉천과 합류한다. 이후 전주시청 앞 ~ 중앙시장 ~ 한국은행 전북본부 ~ 북문교(과거 한진고속터미널)에서 동쪽에서 흘러오는 모래내(건산천)와 합류한다. 현재 낙수정 마을의 효성교동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북문교까지는 북개되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간남대 2길, 간남로, 기린대로, 한지길, 충경로, 현무 3길,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노송여울 2길, 팔달로), 중앙시장 ~ 한국은행 전북본부 사이 구간은 일부 복원되었다(2010년). 노송천은 동부의 노송동과 서부의 중앙동 및 풍남동의 경계를 흐르며, 하류는 진북동 지역이다.

인봉천(약 2.2km)은 북쪽 계곡 기린사의 상류에서 시작하는데, 마당재(아중로와 견훤로가 만나는 사거리, 예우랑 부근)에서 시작한 물줄기와 합류하여, 기린봉 아파

트 ~ 전주제일고 ~ 문화촌 ~ 진안 사거리 ~ 전주교 정문 남쪽으로 흘러, 전주교 부근에서 노송천에 합류된다. 인봉천은 대부분 노송동 지역을 흐르는데, 현재는 기린산체의 계곡(기린사~기린봉 아파트) 외에는 모두 복개가 이루어져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마당재 2길, 마당재 3길, 아중로). 중간에 위치하는 문화촌은 원래 인봉천을 인공적으로 막은 인봉지(연못)가 있던 곳이었는데, 1949년 이곳을 매립하여 전주 공설운동장으로 이용하다가, 1963년 덕진동으로 공설운동장이 이전되면서 주택지역(문화촌)으로 개발되었다. 인봉지는 농업용수를 위한 인공 저수지로, 조선시대에 개축한 기록과 유적이 발견되었다(국립전주박물관, 2016).

모래내(또는 건산천, 약 6.0km)는 기린봉 북쪽에 위치하는 선린사 아래의 물당골에서 발원하여, 가재미골(인봉초, 인후초, 기린초등학교)을 흘러(북진)오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도마다리, 작은 모래내 다리, 큰 모래내 다리를 통과하여(서진), 북문교(구 한진고속터미널)에서 노송천과 합류한다. 현재는 대부분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무삼지로, 건산로). 북문교에서 노송천과 합류한 모래내는 서쪽으로 약 1.4km를 서진하여 전주천으로 합류한다(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부근). 모래내의 상류는 대부분 인후동에 해당하지만, 하류는 금암동과 진북동의 경계를 이룬다. 위 3개의 내부 하천(인봉천, 노송천, 모래내)은 모두 합류하여 전주천으로 유입된다.

기린봉 산체의 동쪽으로 흐르는 아중천은 묵방산(527.4m, 완주군 상관면과 전주시 우아동 1가의 경계)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아중저수지(1961년)를 거쳐 북진하고, 고려병원 서쪽과 동부대로를 지나 완주군 용진읍 하이리와 연결되는 하이고 부근에서 완주군 소양면에서 흘러오는 소양천과 합류하게 된다. 이후 약 7.1km를 북서진하여 흐르다가 회포대교(전주시 전미동과 완주군 삼례읍의 경계)에서 동쪽에서 흘러오는 고산천과 합류하게 된다. 전주 시내를 흐르는 모든 하천이 만경강으로 유입되지만, 인봉천, 노송천, 모래내는 전주천으로 1차 유입되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데 비하여, 아중천은 동쪽의 소양천으로 흘러 만경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주 시내에는 농업용이 아닌 풍수지리에 의해서 축조된 것(후백제)으로 전해지는 덕진연못(조성욱, 2021)과 농업용으로 축조한 인봉지(노송동, 1795년), 오송제(송천동, 건지산 산줄기, 1930년대), 기지제(혁신동, 황방산 서쪽, 1934년), 아중저수지(또는 인교저수지, 1961년)와 백석저수지(전미동, 1964년) 등이 있다. 이러한 저수지들은 현재 농업용수 공급 기능보다는 도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2. 전주천의 서천(西遷)에 관한 논의

1943년에 출판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전주천의 유로변경에 대해서 다양한 추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1905년 「완산지(完山誌)」에 시작점을 두고 있다(표 1).

「전주부사(1943)」에서는 「완산지(1905)」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주천의 유로변화를 전제로 다양한 추론과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후백제 시기 견훤도성(900년)과 관련짓고 있다. 즉, 전주천이 예전에는 현재의 흐름과 달리 한벽당 → 오목대 아래 → 덕진연못 → 추천으로 흘렀던 시기가 있었는데, 전주천이 현재의 흐름으로 서천(西遷)했다고 추정하고(그림 2), 전주의 좌향(坐向)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뀐 점, 견훤도성의 위치, 전주읍성의 축조 등을 전주천의 서천과 관련짓고 있다.

「전주부사(1943)」에서는 전주천의 서천(西遷)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구시가지의 평탄 지역에 과거 하천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전주 구시가지 지역에서 우물을 파면 하천의 돌과 사력층이 나오고, 오목대 아래에는 배가 접안하고 이동로로 이용했던 함도(陷道, 움푹패인 길)의 흔적이 존재하며, 경기전 앞과 경기묘 조성 때에 하천의 흔적이 나왔고, 과거 전주 여고 부근(현 라한호텔)의 오래된 나무는 하천 주변에서 자랐던 나무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덕진동 가련산의 암벽은 하천침식의 흔적이고, 서산에는 하천의 침식 흔적이 남아 있으며, 토성지(반촌)에서 서쪽으로 뻗

표 1. 1905년 발행 「완산지」의 전주천 유로 흔적 내용

[完山誌(1905)], <(故事)> 豐沛記聞

鄉里記言 [南大川舊從梧木臺下流去川道至今尙存閭閻之]

해석 : 예전에 남대천이 오목대 아래를 지나 흘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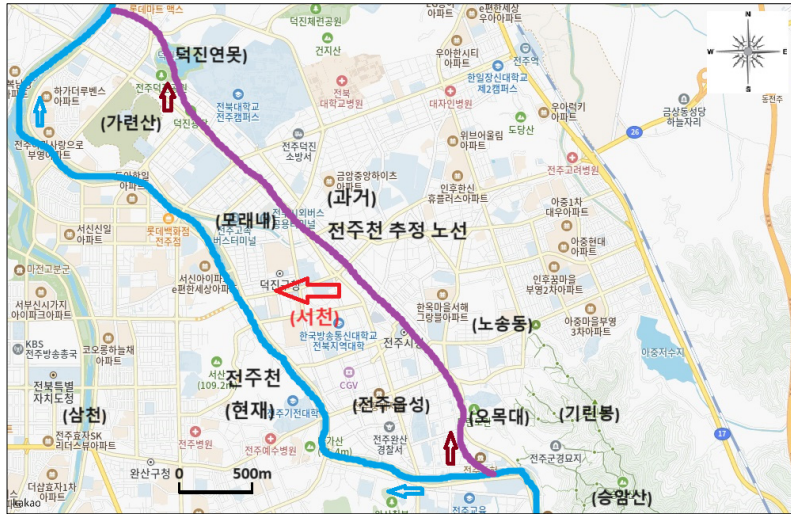


그림 2 「전주부사」에서 추정한 전주천의 과거 유로(우측)와 현재 유로(좌측)(Kakaomap)

어 있었던 긴 둑(장제, 長堤)의 끝점은 과거 전주천과 만나는 지점으로 이 끝점과 현재 전주천과의 거리(약 450m)로 전주천의 서천 속도와 시점을 계산할 수 있다는 등이 다(표 2).

「전주부사(1943)」에서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관선교천(노송천)과 전주천이 만나는 부분에 이토(泥土)와 사력 지대가 접하고 있으며(158쪽), 전주 시가지의 지형은 동서로 2중 경사의 단이 존재하고, 시가지에 요지(옴폭 파인 곳)가 군데군데 있으며, 평탄지이지만 9m 이상의 고도 차이가 나는 것 등을 과거 전주천의 하상 변화 흔적(179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천의 물이 지하로 잠수하여 우물과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고, 주운(舟運)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하천 연변은 도로와 철도(교통로) 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다(173쪽)고 하고 있다. 또한 후백제 시대에 전주천이 견훤왕궁 앞까지 흘러 왕궁의 외호(外濠) 역할을 했으며, 장제(長堤)는 왕궁 방호와 백호(右白虎) 그리고 전주천의 제방 역할로 추정되고, 장제가 끊긴 부분의 존재는 전주천의 서천을 의미하는 것(974쪽)이라는 등을 전주천의 서천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전주 구시가지 지역에 과거 전주천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증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질시대의 사실과 역사시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전주 구시가지의 지하에 과거 전주천에 의해서 형성된 사력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거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의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

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전주천이 흘렀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과거 전주여고(현 라한호텔) 옆의 느티나무는 전주천의 서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곳은 전주천이 아닌 노송천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다. 지금도 노송천이 복개되었지만 군데군데 하천변에서 자라는 느티나무가 하천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천주교 전주교구청 부근 주차장, 한지길의 연화당 한약방 부근, 전주시청 동남쪽 인봉천과 만나는 부분 등). 즉, 전주 구시가지의 평탄 지역이 과거 전주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역사적 사실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무리이다.

견훤도성의 반월형 외곽 성벽 선 중 대부분은 자연 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인공적인 토축물로 추정되는 곳은 노송정 90-2번지 토축물(현재 천주교 전주교구청 남쪽), 제사공장 부근의 일자 성벽(현 동양아파트), 전주시청(구 전주역) 앞의 토축물, 오목대 성벽 등 주로 서쪽 측면이다(최홍선, 2016). 그리고 반대산 - 제사공장 - 전주천(진북사 방향)의 일자형(一字形) 토축물은 현재 노송천이 흐르는 평지 지점을 동서로 가로막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내부를 에워싸는 성벽이라기보다는 방어벽 또는 구분선일 가능성이 높다. 김주성(2014)은 통일신라 시대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리구획과 전라감영지와 한국전통문화전당(경원동 3가)에서 발견된 ‘관(官)’자 명의 기와 그리고 쌍사자 무늬의 전(磚, 벽돌)을 증거로 후백제 도성은 전주천변의 평탄지대인 전주읍성 일대(구

표 2 「전주부사(1943년, 165~169쪽)」에 기술된 전주천의 유로변화 관련 내용들

165쪽 : [4. 충적층의 형성]

- 1) 승암산과 남고산 사이의 규암층이 있어서 전주천 상류에 대호수 또는 대폭포를 형성했던 시기가 있었고, 언젠가 붕괴했다.
- 2) 부내(府內)의 건축물 초석이나 석단 등에 사용되었던 큰 천석(川石)은 과거 전주천에 의해 운반된 것이다.
- 3) 지하 1-2척을 파면 큰 돌이 나오는 곳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대부분의 물이 지하로 침투하며, 우물의 내벽 중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하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와 돌이 엄청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166~168쪽 : [5. 하상(河床)의 변천]

[예전에는 한벽당-오목대-전라 철도선-덕진연못-추천으로 흘렀던 시기가 있었다]

- 1) 우물을 파면 기반암에 이르기 전에 하천 돌이 나온다.
- 2) 덕진역 앞 사평마을에 있는 가련산의 노출된 암벽은 과거 전주천의 침식 흔적이다.
- 3) 덕진연못은 전주천의 유로가 변경된 후, 북쪽 방향의 공허함을 막고, 물을 모아, 관개와 유람에 이용한 것이다.
- 4) 덕진연못과 전군(全郡)도로 사이의 밭을 1m만 파면 모래와 자갈이 나온다.
- 5) 오목대 북서단 절벽 아래에는 움푹 파인 사면이 있는데(함도), 이것은 아래에 배를 대고 왕래했던 흔적이다.
- 6) 곤지산, 다가산, 길야산, 진북사에는 하천에 의한 침식 흔적이 있다.
- 7) 오목대 서쪽 아래와 청수정(교동) 아래 약 1.5m에는 덕진가도를 따라 고지배수구의 하저(노면보다 2m 정도 아래)에 긴 하천모래층이 횡으로 존재한다.
- 8) 경기전 남측에는 과거 하저의 흔적이 있었다(도로공사 중 발견).
- 9) 영조 47년(1771) 경기묘를 조성할 때 부근의 소하천을 매립했다.
- 10) 전주공립고등여학교(전주여고, 현 라한호텔) 앞에는 수령 200년 이상 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 천변에서 자란 것이다.
- 11) (구)전주역과 전북제사회사 사이의 지하 3~4m에 다량의 사력층이 있는데, 이 사력층에서 커다란 나무 기둥이 발견되었다.

[추가 : 전주천 하상의 변화에 따른 시가지의 이동]

- 1) 후백제 시기 전주의 주지(州治)는 전주공립농업학교(현 병무청)와 전주남공립중학교(현 전주제일고)를 중심으로 앞은 전주천, 뒤는 산으로 배후를 삼아 서향으로 위치했었다. 이후 후백제 멸망과 전주천의 하상변천이 발생한 여말선초에 저지 시가의 주요부가 되면서 석성을 축소함과 동시에 풍수설에 따라 남향으로 방위가 바뀌었다.
- 2) 전설 : 전주가 서향을 했을 때는 재물과 인재가 풍부했으나, 남향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재물과 인재배출이 적어졌다.
- 3) 종방(鍾紡)의 북동쪽과 검암정의 산간 사이에 조성된 건허수(乾虛藪)는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에 의해서 북쪽 방향의 허함을 막기 위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나, 그 이전의 고지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169쪽 : [6. 전주천과 덕진연못]

- 1) 부(府) 북쪽의 토성벽지는 형무소의 남동쪽 일각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서진하여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 구내의 중앙 종점까지 약 800m 길이이다. 그런데 이 종점에서 지금의 전주천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450m이다.
- 2) (구)전주역 동쪽 구릉지에 위치해 있던 고성지(古城址)는 우백호(右白虎)를 겹해서 축조 되었기 때문에 약 천년 전의 전주천은 이 토성지의 종점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전주천은 지난 천 년 동안 서쪽으로 450m 이동했다는 결론이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연평균 45cm(약 1척 5촌)씩 하상이 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근의 철도 노선과 전주천 우안과의 거리인 1,100m를 하상이 이동하는 데는 약 2,4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3) 전주천이 지금의 위치로 이행을 마감한 것은 몇 백 년 전의 일인 듯한데, 고려 말(1388년)에 최유경이 후세 조선시대의 성곽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석축하여 전주부성을 영조(營造)한 것을 보면, 당시에는 아직 인력에 의한 수방사업이 하류 지방에는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토성벽 종점 부근의 강물은 지금의 위치나 혹은 다소 동쪽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하상의 연평균 이동거리는 연 45cm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말한 2,400여 년은 몇 백 년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시가지 지역)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천의 서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전주천의 서전과 그로 인하여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평탄 지역이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지형 변화는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그 이후 즉 통일신라시대와 후백제 시대 때의 전주천의 흐름은 현재와 유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III.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과 하천의 유로변화

1.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퇴적층 형성

전주 지역의 지질은 전주통(全州統)과 박상 화강암(剝狀花崗巖), 제4기(第4紀)로 구분된다(장호, 1981:63). 전주통(고생대 캄브리아기; 2억 5천만년 ~ 5억 4천만년 전)은 전주 지역의 동남부 해발 300여m의 산지를 형성하는데(사대리층, 신동층, 기린봉층), 이 중 가장 아래 부분인 사대리층의 규암이 남고산과 승암산의 산정 능선을 이룬다. 그리고 박상 화강암(schistose granite)은 중생대 쥐라기(1억 4천만년 ~ 1억 8천만년 전) 때 관입된 대보화강암으로, 시가지 주변 해발고도 100여m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생대 제4기 지층(현재 ~ 258만년 전)은 해발고도 40m 미만의 구시가지 지역의 매물 퇴적층(alluvial series,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전주천변, 삼천천변 등)(장호, 1981:65).

1980년 전주 코아 관광호텔 지점의 매물 퇴적층(완산구 서노송동 627-1번지, 구 전주 제사공장, 현재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 해발고도 40m)을 관찰한 연구에서, 지하 5.3m 지점에 기반암이 나타났다(장호, 1981:65)(표 3).

전주 구시가지의 매물층은 중생대 쥐라기 때에 관입된 화강암층을 기반암으로 그 위에 사력층, 점토질층, 적등색 토양층, 암회색 토양층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장호, 1981:66). 전주 지역은 노령산맥 북서산록의 곡구(谷口)와 호남평야가 만나는 지점으로, 구시가지의 매물퇴적층은 한벽당 부근의 곡구(谷口)를 중심으로 퇴적물이 선상지형(扇狀地形)으로 쌓여 있다(장호, 1981:65)(그림 3). 그러나 매물퇴적층이 곡구를 중심으로 방사상 분포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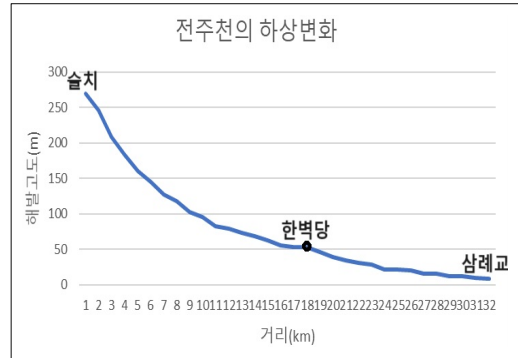


그림 3. 전주천의 하상 변화(해발고도: 슬치 270m, 한벽당 53m, 삼례교 9m)

이지는 않고 있고, 퇴적된 암석의 종류가 상류나 주변 지층의 암석과 같은 종류이며, 박상 화강암에 비해서 침식에 강한 규암이 곡구를 형성하고 있고, 곡구와 하류 지역 사이에 고도차가 있으며, 역(礫, 자갈)의 분급(sorting)과 층리(bedding) 상태가 불량하다는 특징이 있다(장호, 1981:67). 따라서 전주 구시가지 지역은 선상지라기 보다는 기반암을 형성하는 박상 화강암 위에 전주천에 의해 하천 퇴적물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주 구시가지에 퇴적된 선상지형 퇴적층(사력층)은 홀로세(Holocene, BP 12,000년)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이 시기는 주빙하 환경에서 홀로세로 넘어오는 과도기로 운반물질은 많지만, 하천이 얇고 넓게 흐르는 포상홍수 형태였기 때문에, 하천의 운반력이 부족하여 선상지형으로 퇴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력층 위에 퇴적되어 있는 점토질층은 역시 하천의 퇴적물로 현재보다 따뜻했던 기후 온난기(climatic optimum, BP 7,000~4,000년)에 사력층 위에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장호,

표 3. 전주 코아 관광호텔 지점(현재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 매물 퇴적층의 퇴적 특성

해발고도(깊이)	퇴적 특성
40.0m(0m)	지표면
39.5m(-0.5m)	0.5m 두께, 암회색 토양(dark gray soil), 각력, 도자기 파편
39.0m(-1.0m)	0.5m 두께, 암회색 점토 퇴적물(dark gray clay deposits)
37.5m(-2.5m)	1.5m 두께, 적등색 토양, 회백색의 반문과 조문의 글리(Gley)
35.7m(-4.3m)	1.8m 두께, 암회색 점토질층
34.7m(-5.3m)	1.0m 두께, 사력층(모래, 원력, 각력)
34.7m 아래	풍화된 박상 화강암(기반암)

* 해당 자료는 장호(1981)의 66쪽 내용을 도표화한 것임.

1981:67).

그리고 점토질층 위의 적등색 토양은 동부 구릉 지역(노송동 일대)에서 풍화(風化)된 토양이 중력에 의해 사면 이동하여 점토질층 위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장호, 1981:68). 특히 동부 구릉과 만나는 지점에 나타나는 지하 1m ~ 2.5m 내외에 분포하는 적등(赤橙)색의 글리(Gley, 지하수면의 변동에 의해 생기는 토양의 얼룩이나 나뭇가지 모양의 무늬)를 갖는 토양층(reddish orange soil with gley)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매몰퇴적층의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토양화가 현재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부 구릉지역에서 형성된 풍화토양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장호, 1981:67). 그리고 그 위의 0.5m의 암회색 점토 퇴적물은 전주천보다는 노송천의 하천 퇴적물로 보인다.

이와같이 전주 구시가지 지역의 지질(현재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 기준)은 지하 약 5.3m 아래에 중생대 쥐라기 때 관입된 화강암이 기반암으로 존재하고, 그 위에 전주천에 의해 운반된 모래와 자갈 등의 사력층이 약 1m 두께로 퇴적되었으며(BP 12,000년), 사력층 위에는 전주천에 의해 형성된 1.8m 두께의 점토질층이 퇴적되었다(BP 7,000~4,000년). 그리고 점토질층 위에는 동부 구릉지에서 풍화된 토양이 사면 이동하여 퇴적되었는데(1.5m), 이 토양층의 두께는 구릉지에 가까운 동부는 두껍고, 서부의 전주천에 가까울수록 얇아진다.

이상과 같이 전주 구시가지 지역은 화강암의 기반암 위에 전주천에 의해 사력층과 점토질층이 퇴적되었으며, 이후 동부 구릉지에서 풍화된 토양이 사면 이동하여 그 위를 덮고 있는 형태이다(표 4). 이러한 퇴적층서를 역사시대와 대비해 보면, 약 2,000년 ~ 1,400여년 전의 백제시대(BC 18년~660년)에는 전주천에 의한 매몰퇴적층인 사력층과 점토질층의 형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동부 구릉지에서 풍화토가 서서히 이동하는 중이었고, 전주천 유역은 간헐적인 홍수가 있었던 상태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천변에서는 인간의 안정적인 거주가

어려울 수 있지만, 동부 구릉지 쪽에는 인간의 거주가 안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로 보인다. 이후 풍화층의 이동과 전주천의 하방침식이 진전되면서 고도차에 의해서 전주천의 범람 지역이 축소되고, 인간에 의한 가용 면적이 증가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주부사(1943)」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주천의 서쪽으로의 유로변천은 매몰퇴적층의 퇴적 범위, 전주천 서안 산지 암벽의 침식 흔적 등으로 보아 가능성이 높지만, 덕진동 가련산에서 남쪽(사평리)에만 하천침식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주천이 한벽당에서 덕진연못을 지나 추천으로 유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덕진연못은 전주천의 하적(河跡)이 아니라 인공저수지로 전주천의 유로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장호, 1981:67; 전주시, 1986:56). 즉, 전주천이 서천했으므로 추정은 되지만, 「전주부사(1943)」에서 추정하고 있는 한벽당 → 오목대 → 철도선(전라선) → 덕진연못 → 추천 노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주 지역에 인간이 본격적으로 집단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을 마한 시대(BC 2~3세기 추정)로 상정한다면, 전주천에 의한 구시가지 지역의 평탄지 형성은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된 상태이고, 이후 풍화토양의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인간이 거주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승암산과 남고산 사이의 규암층 봉괴와 사력층과 점토질층의 퇴적은 이미 완료되었고, 구릉지역에서의 토양층 이동이 서서히 이루어지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는 홍수 시기에 전주천의 범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주천 연변은 습지나 갈대숲으로 이루어져 인간 거주가 제한적이었지만, 하천의 범람에서 안전한 동부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에서는 인간의 거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토양층의 사면이동(점토질층 위로 약 2m 정도)으로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전주천의 하방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하천이 깊어지면서, 전주천의 범람 범위의 축소와 함께 서서히 전주천변 쪽으로의 개척이 이루어

표 4. 전주 구시가지의 퇴적층서

토양층서	형성 과정	추정시기
적황색토(상부)	풍화 토양의 사면 이동	BP 4,000년 이후
점토질층(중부)	하천에 의한 운반, 범람원 시기	BP 7,000~4,000년
선상지형 사력층(하부)	포상홍수, 망상하천	BP 12,000~7,000년
기반암	화강암층	중생대 쥐라기

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 지역에 사람들의 본격적인 집단 거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한시대 이후에는 구시가지의 평탄지역은 전주천에 의한 퇴적이 마무리된 이후이고, 동쪽의 노송동 방향에서 서쪽의 전주천 방향으로 풍화 토양층의 사면이동과 함께, 전주천의 범람 범위가 서서히 축소되는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노송천의 역할과 유로변화 가능성

「전주부사(1943)」에서는 승암산 골짜기에서 시작하는 노송천을 별도의 하천으로 보지 않고 ‘고지배수구(高地排水溝)’로 기술하고, 노면보다 2m 정도 낮은 지역을 노송천이 아닌 과거 전주천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5).

노송천은 동쪽의 구릉지와 서쪽의 평탄지 사이를 북서쪽으로 흘러 북문교(구 한진고속터미널 부근)에서 모래

내와 합류한다. 그러나 노송천은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더 짧은 거리(전주교 전주교구청 → 오목대 밑 → 경기전 → 풍남문 → 전주천)로 전주천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데, 북서쪽으로 구릉지와 평탄지 사이를 흘러 모래내로 합류한다는 것은 평탄지 내부에서도 바로 전주천으로 흘러들지 못할 정도의 고도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인공적인 하천의 유로변경을 생각할 수 있다(그림 4). 동부 구릉지와 서부 평탄지 사이 노송천이 흐르는 지역에 2m 정도 낮은 하상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전주천의 과거 흔적이라기 보다는 노송천의 침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주부사(1943)」에서 전주천 서천의 증거로 제시되는 오목대 하단, 경기전과 경기묘 앞의 유로 흔적은 전주천이 아닌 노송천의 흐름에 의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노송천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노송동의 구릉지와 중앙동 평탄지의 경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그림 4. 노송천과 인봉천의 유로 변화 가능성(Kakaomap)

표 5. ‘고지배수구(高地排水溝)’에 대한 기술 내용(「전주부사(1943)」)

쪽수	고지배수구(高地排水溝) 내용 기술
168	오목대 서쪽 아래에서부터 덕진 가도를 따라 고지배수구 의 하천 흔적이 있는데, 하저에는 모래층이 있다(노면보다 2m 정도 아래).
172	사천(沙川, 모래내 또는 건산천)은 검암리에 이르러 고지배수구 의 물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 전주천에 합류된다.
180	지점별 해발고도 : 도정정문(39.520m), 고지배수구(38.661m) , 경기전(41.438m), 남문 앞(41.071m), 전주교(40.626m), 전주측후소(51.200m), 은행나무 평산약방(36.830m), 수비대(38.350m), 상업은행 지점(38.453m), 우편국 앞(38.508m)
983	관선천교(고지배수구)

었다면, 노송동의 구릉지에서 생산된 풍화 토양이 서쪽의 평탄지로 중력이동(mass movement)하는 것을 막아 구시가지 지역에 풍화층이 퇴적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평탄지에 풍화 토양이 퇴적된 것을 보면, 과거와 현재 노송천의 흐름이 달랐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노송천과 인봉천이 현재와 같이 북서쪽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서쪽으로 흘러 전주천으로 유입되었고, 이 두 하천은 구릉지의 풍화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전주 구시가지 지역으로 풍화 토양을 운반하여 퇴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과거 노송천은 서쪽으로 흘러 바로 전주천으로 유입되던 시기가 있었고, 어느 시점에 현재와 같이 북서쪽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송천의 하천 흐름은 자연적으로 현재의 유로로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노송천의 범람에 의해서 전주 구시가지 지역이 홍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유로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송천은 전주천에 비해서 유량이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유로 흐름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노송천의 인공적인 유로변화 시점은 토지구획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초기 또는 노송동 구릉지지역에 견훤도성을 축조할 때 견훤도성 서쪽의 해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현재와 같이 유로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노송천과 모래내가 만나는 ‘진밭들’(진북동)은 두 하천에 의해 운반된 하천 퇴적물이 퇴적된 곳이다.

전주 중앙시장 기초공사장 지하 4.4m의 사력층에서 발견된(1971년) 탄화목(炭化木)의 형성 시기가 $2,740 \pm 110$ 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나무는 전주천에 의한 퇴적보다는 풍화토의 사면이동 시기에 매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장호, 1981:68). 즉, 약 2,800년 전에도 풍화토의 사면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면이동을 막는 흐름을 보이는 현재 노송천의 흐름 방향이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전주천의 유로 변화와 일자성(一字城)의 역할

통일신라시대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 지역 방리구획(坊里區劃)의 특징으로(이경찬, 2004), 전주천 방향의 평탄지인 서쪽 지역은 규칙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동부 구릉지 지역에서는 주향과 구획선의 길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방리구획 실시 당시에 전주천과 가까운 서부 지역의 평탄지는 전주천의 홍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안정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방리구획 실시 시기를 통일신라시대로 본다면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천은 현재의 유로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통일신라 말기인 900년 견훤도성이 축조될 당시 전주천은 이미 유로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견훤도성의 서부 성벽을 이루는 고토성 - 전주시청 동쪽 - 노송정 90-2번지 토축물 - 오목대 선(국립익산박물관, 2022:202)은 전주천보다는 지류인 노송천의 흐름과 일치한다. 즉, 노송천을 경계로 동부의 구릉지대와 서부의 평탄지로 구분된 것으로 보이며, 동부에 견훤도성의 서쪽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견훤도성(900년)과 전주읍성(1388년)의 축조 당시에 해당 지역은 전주천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전주천의 지류인 노송천(서쪽)과 모래내(북쪽)가 견훤성의 해자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견훤도성은 동쪽은 기린봉 산줄기를 경계를 삼고, 서쪽은 노송천으로 경계를 하며, 북쪽은 반대(대)산과 모래내, 남쪽은 기린봉과 승암산으로 경계를 이루어, 성 내에서의 도시 구조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 조건에 따라 서향(西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토성(반촌)에서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長堤, 장제 1)과 전매국 상생부지(소화정644번지, 현재 진북동) 북변(장제 2)까지 이어지는 두 줄기의 성벽(전주부사, 1943:974)의 용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 성벽이 견훤시대에 축조된 구조물인지의 문제, 전주의 평탄지까지를 포함하는 나성의 개념으로 구축된 견훤도성의 일부인지, 견훤도성의 익성(翼城) 개념인지, 아니면 견훤성과 관련이 없이 북쪽의 허한 기를 막기 위한 풍수지리에 의한 축조물인지, 또는 북쪽 모래내의 범람으로부터 시가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인지의 문제이다. 「전주부사(1943)」에서는 이 성벽(장제, 長堤)을 견훤도성의 일부로 추정하고, 전주천까지 연결되지 못한 점(전주천과 450m 정도 거리에서 멈춤)을 들어 전주천의 서천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전주부사, 1943:169). 즉, 후백제 시대 당시에는 이 성벽을 전주천까지 축조하였는데, 이후 전주천이 서쪽으로 더 이동하여 나머지 450m의 거리를 후백제 이후 전주천이 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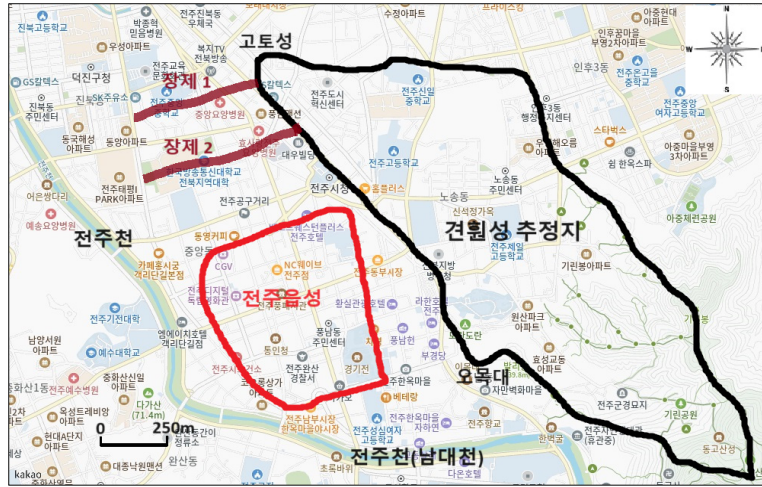


그림 5. 고토성과 장제(1, 2) 그리고 전주읍성(Kakaomap)

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추정한 것이다(그림 5).

이것은 견훤이 전주에 후백제를 도읍한 900년을 기준으로 약 1,000년 동안 전주천이 서쪽으로 약 450m를 이동했다는 추정이고, 이것은 1년에 45cm(1척 5촌)씩 이동한 것으로 계산했다(전주부사, 1943:169). 또한 견훤 도성의 서쪽 성벽이었던 구 전라선 철도 노선과 전주천까지의 거리가 약 1,100m인 점을 고려하면, 전주천의 서천은 약 2,400여년이 걸린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1388년 고려말에 구시가지 평탄지역에 전주읍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전주천은 이 성벽이 끝나는 지점이나 다소 동쪽으로 흘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주부사, 1943:169). 전주읍성의 북쪽 성벽과 일자형 성벽 사이의 거리는 약 800m이기 때문에, 전주천이 일자형 성벽 끝 지점으로 흘렀다고 해도 전주읍성을 축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장제(長堤)의 존재는 고려시대 정추(鄭樞, 1333~1383)의 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표 6), 그의 시에서는 물가에 접해서 성문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서 서쪽 성벽에 하천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전주천이라기 보다는 노송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장제의 시발점인 고토성(古土城)은 동국여지승람(1486년)

에 처음 등장하고, 성황사중창기(1688년), 1734년 조현명(1690~1752)의 전주성 개축, 1912년 지적도, 1918년 전주지도, 1925년 최남선의 기록, 1939년 전주 시가지계획 평면도, 전주부 경역연혁도(전주부사, 1943), 항공사진(1954년) 등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토성이 선(線)인지(최홍선, 2021), 아니면 면(面)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전영래는 고토성을 동서 700m, 남북 360m, 둘레 2km의 면(面)으로 추정하고 있다(전영래, 1980).

전주천의 서천을 주장하는 「전주부사」(1943:974)에서는 물왕벌 지역을 견훤성의 궁성으로 추정하고 왕궁 앞까지 전주천이 흘렀으며, 두 줄기의 장제는 왕궁 방호(외호역할), 사신(四神) 중 우백호(右白虎)의 역할, 전주천의 제방 역할까지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토성에서 전주천 방향으로 축조된 일자성을 견훤성의 북쪽 성벽으로 추정하고, 견훤성을 노송동 구릉지역의 반월형 성이 아닌 평탄지를 포함하는 타원형의 행주형(行舟形) 구조로 추정하여, 견훤도성의 서쪽 성벽에 있었던 해자는 전주천으로 보는 등 좀 더 큰 지리적 범위에서 견훤도성을 상정하기도 하였다(최홍선, 2021:166). 그러나 유병하·나병호(2015)는 이 일자상의 토축물을 견훤성의 도

표 6. 정추(1333~1383)의 시

〔甄萱弄兵地 臨水設柴門〕 (견훤농병지 임수설시문)

해석 : (고토성에) 견훤군의 군사주둔지가 있고, 하천에 임해서 문을 설치하였다

출처 : 鄭樞(정추), 1418, 「원재집(圓齋集)」.

성체계가 아니라 방어체계 상에서 반대산(고토성)과 서쪽의 서산을 잇는 추가성벽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전영래(2001:20)는 노송천(기린봉천)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바꾸어 그 양안에 장제를 쌓아 도성의 외곽으로 삼은 것이 이 두 줄기의 장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두 개의 장제(長堤) 사이를 인공적으로 유로를 바꾼 노송천이 흘렀다는 추정이다. 즉, 서쪽의 전주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노송천과 인봉천을 인공적으로 복서진하도록 하고, 노송천의 양쪽에 제방을 구축한 것이 2개의 일자성(一字城)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 추정은 「전주부사(1943)」에서 추정하는 전주천의 유로변화가 아닌 노송천의 인공적인 유로변화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토성에서 서쪽의 전주천 방향으로 만들어진 2개의 장제는 성벽의 방향이 현재의 노송천 흐름을 막는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장제의 북쪽은 모래내와 노송천이 만나는 부분으로 두 하천에 의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성벽을 축조할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성벽은 모래내의 범람에 대해서 구시가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의 제방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견훤시대가 아닌 이후 풍수지리에 의한 북쪽의 하한 기를 막는 상징적인 의미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장제의 끝점이 현재의 전주천과 접하지 않은 것은 장제의 끝점과 전주천 사이 지역이 홍수시에는 범람하는 범람원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범람원이 안정화되면서 장제와 전주천 사이에 숲정이 숲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2개의 장제가 견훤시대에 축조되었다면, 이 장제의 구축 목적은 견훤도성의 연장선으로 전주천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부터 시가지 지역으로 성장한 구시가지 지역을 포괄하는 2차 방어선의 역할과 함께, 모래내와 노송천의 합류로 인한 범람에서 구시가지 지역을 보호하는 하천 제방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장제는 노송천의 인공적 유로변경과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승암산에서 발원하는 노송천은 기린봉에서 발원한 인봉천과 합류하고, 고토성 북서부에서 역시 기린봉에서 발원한 모래내와 합류하게 된다. 이와같이 승암산과 기린봉에서 발원하여 견훤성의 내부를 흘렀던 노송천과 인봉천 그리고 성 밖 북부를 흘렀던 모래내가 만나는 지점에 금암동의 검암바위와 거북바위가 위치해 있다. 견훤시대에 생각했던 전주의 실질적 지리적 범위는 북쪽으로

는 모래내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건(乾)지산과 곤(坤)지산, 가련(可連)산, 덕진연못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리적 범위는 풍수지리 개념에 의한 상징적 범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IV. 전주 지역에서 전주천의 역할과 의미

1. 전주천 범람의 영향 범위

전주천 중에서 한벽당 ~ 다가산 구간(동서방향)은 전주읍성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남대천(南大川)이라고 불렸다. 남천교(南川橋)는 전주읍성에서 반석원을 거쳐 남원 방면으로 나가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석교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신작로의 개설과 함께 ‘짜전다리(전주교, 1922년)’가 남천교를 대신하여 남원 방향의 주요 교통로가 되었다.

남천교는 전주천 홍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1753년(영조) 홍수로 다리가 유실되어 징검다리 상태로 이용하다가, 1791년(정조) 재건하면서 황방산의 돌을 사용하여 무지개 모양의 둥근 다리로 만들었는데, 이 다리의 기둥이 5개여서 오룡교(五龍橋) 또는 다리 모양이 안경 같다 하여 안경다리(眼鏡橋)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승암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서 다섯 개의 창 머리에 용머리를 새겨 놓았다. 이후 1901년과 1907년 그리고 1910년 홍수로 유실되는 등 홍수 때마다 다리 유실이 반복되었다. 지금 현재의 남천교는 2009년 가설된 것이다(길이 82.5m, 폭 25m, 청연루 정자를 세움).

전주천은 완주군 상관면 방향에서 북진(北進)해 오다가 한벽당의 암반에 부딪혀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는데, 이 지점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곡구(谷口)에 해당한다(해발 53m). 하천 흐름의 급변점이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벽당 하류의 북쪽 지역(전주한벽문화관)과 남쪽 지역(국립무형유산원)은 물웅덩이로 변하고, 물이 빠지면 퇴적물이 쌓여 질퍽질퍽하였다. 특히 전주천의 북쪽인 한벽당에서 향교 남쪽까지의 진흥당 지역을 ‘한뼉밭’이라고 불렸으며(전주문화원, 2001:149),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천변에 버드나무를 심어 방수림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쪽에 위치하는 전주향교는 1354년(고려 공민왕) 경기전 앞에 세워졌으나, 1441년 경기전(1410년

설치) 앞에서 글 읽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유연대(신흥중고 부근)로 옮겨졌다가, 1603년 현재의 위치(교동)로 이전하였는데(이정덕 등, 2021:37), 이전 당시 향교는 남대천의 범람 범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수시에 한벽당에서 남천교 사이(약 700m)의 남북 양쪽 지역은 전주천의 범람원 지역으로 물이 넘쳤던 지역으로(한뫼별), 남천교가 홍수 때마다 여러 차례 유실된 것(1753, 1901, 1907, 1910년 등)을 보면, 이 지점에서 물의 속도가 강하고 물의 양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정 9년)과 1936년(소화 11년, 8월 15일)에 있었던 전주천 홍수의 주요 피해지역은 주로 서정(서학동, 전주천 남부) ~ 소화정(진북동, 전주천 북쪽)의 전주천변 지역이었다(전주부사, 1943:985). 이 중 1936년 대홍수 때의 피해지역은 전주천 남부 지역에서는 서정(서학동), 완산정(완산동) 지역이었고, 천변 북부와 동부 지역은 청수정(교동), 대화정(전동), 다가동과 본정(다가동), 상생정(태평동), 소화정(진북동) 지역 등이었다. 그러나 전주읍성 지역이었던 중앙동 지역(대정정, 팔달정, 화원정, 풍남정)과 구릉지인 노송동(노송정) 등에는 전주천의 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6).

한벽당(루)에서 다가산까지 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남대천)은 현재와는 달리 주변 산지가 뺏어나와 하천이 곡류했지만, 홍수시에 전주읍성 지역까지 침수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전주읍성의 평탄 지역에 통일신라시대에 방리구획이 시행된 것을 보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홍수로부터 안정되었던 지역으로 보인다. 전주 지

역에서 하천의 범람 피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은 전주천 본류의 범람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지만, 지류인 모래내와 노송천의 범람 피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전주 발전에서 전주천의 영향

전주가 역사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동부 구릉지(노송동)와 구릉지에 가까운 지역은 안정적으로 인간의 정착이 가능했고, 전주천변에서는 홍수 때의 범람 등으로 인간 정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 지역의 지역 범위를 고려하면, 내부 하천인 노송천과 인봉천, 모래내(건산천) 그리고 외래 하천인 전주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홍수에 의한 몇 차례의 남천교 유실과 1936년의 대홍수 때에 전주교 이외의 모든 교량이 유실되는(전주부사, 1943:670) 등 전주천의 범람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자연재해로 작용했었다.

전주천은 산각(山脚)에 의해서 현재보다는 더 많이 곡류하는 모습이었지만(전주시, 1986: 57), 유로는 현재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주읍성 지역이 전주천의 범람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1388년 전주부성의 축조 시기에 전주읍성 지역은 전주천 홍수 범람원의 범위를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대홍수 시기에 서정(전주천 남쪽, 서학동) ~ 소화정(전주천 북쪽, 진북동)의 하천변 지역은 전주천 범람의 피해지역이었으나, 1940년대 이후 전주천변의 곤지산과 도토리골 부근(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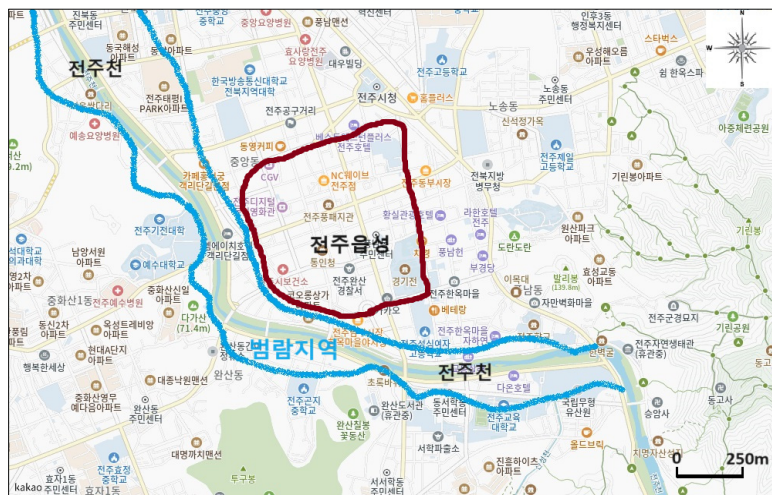


그림 6. 1936년 홍수시 전주천의 범람 범위와 전주읍성(Kakaomap)

산), 진북사 부근 등 하천쪽으로 뻗어나온 산각을 정비하고 직강화하여 물의 흐름을 빨리하였으며, 인공제방을 축조하여, 홍수시 범람 지역의 범위가 축소되었다(Huggett, 2011; 윤순옥 등 역, 2014). 특히 구시가지 지역이었던 한벽당 ~ 다가산 ~ 진북사 부근까지는 1940년대에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고, 하류 지역인 진북동과 금암동, 덕진동, 서신동의 인공제방은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전주시의 시가지 확장은 주로 전주천의 흐름을 따라 하류인 북서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하천의 지류가 합류하는 지역에는 범람원이 형성되어 주로 농업 용지로 이용하다가, 1960년대 이후 인공제방의 축조에 의해서 홍수로부터 안정화되면서 주택지로 개발되었다. 즉, 전주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류인 완산동과 서학동 그리고 교동 지역의 거주 지역이 먼저 안정화되었고, 이후 내부 하천인 노송천과 모래내가 합류하는 범람원 지역이었던 진밭들(진북동), 전주천과 모래내의 합류 지점인 장제들(진북동), 전주천 하류의 범람원 지역이었던 용산들(금암동과 덕진동, 1960년대)과 고사평(서신동, 1990년대) 그리고 가리내들(덕진동, 2000년대)의 지역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전주천을 넘어 삼천의 범람원 지역이었던 마전들(2005년 전북도청 이전) 개발이 이루어져 삼천에 대한 통제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그림 7). 이와 같이 전주시의 지역개발 방향이 북서쪽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주천의 통제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전주천 주변의 범람원 지역은 범람원에서 농업지역 그리고 주택지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 추정하고 있는 전주천의 서쪽으로의 유로변화(西遷)의 가능성과 건환의 후백제 시대 전주 지역의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의 유로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전주 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내부 하천(노송천, 인봉천, 모래내, 아중천)과 외부 하천(전주천, 삼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주 구시가지의 평탄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하천은 전주천이다. 그러나 노송천의 역할과 유로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주부사(1943)」에 기록된 전주천의 서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주천의 유로변화 가능성은 타당하지만, 그 시점을 건환도성의 축성 시점(900년경)과 직접 관련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장호(1981)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주 구시가지 퇴적층의 층서를 살펴보았다. 전주 구시가지는 박상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전주천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그 위에는 약 1m 정도의 사력층과 그 위에는 약 1.8m의 점토질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약 1.5m 정도의 풍화토양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부 구릉 지역(노송동)에서 풍화토가 서쪽(전주천 방향)으로 사면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900년 건환성 축조시기에는 이미 전주천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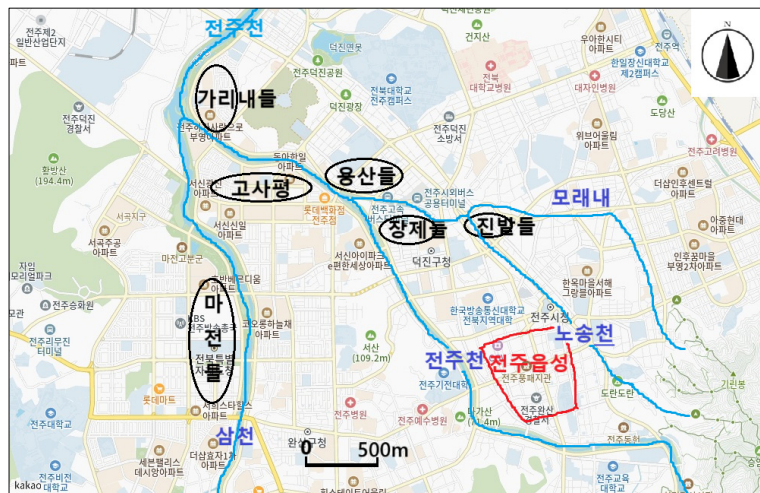


그림 7. 전주천 유역 범람원 개발 지역(Kakaomap)

지형 형성 과정은 안정화된 시기로 전주천보다는 노송천의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으며, 견훤성 서쪽 성벽의 해자는 전주천보다는 노송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고토성에서 전주천 방향으로 축조된 일자성의 역할에 대해서 노송천 양쪽에 만들어진 성벽(장제), 전주천 서천의 증거, 견훤도성의 일부, 풍수지리 관련 축조물 등으로 다양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장제가 견훤도성 시기에 축조되었다면 전주 구시가지 지역을 포함하는 북쪽의 2차 방어 시설 또는 모래내와 노송천 합류 지역의 범람으로부터 구시가지 지역을 보호하는 하천 제방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풍수지리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전주천의 범람은 전주 지역 거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40년대 이후의 인공제방 축조와 직강화 공사에 의해서 전주천의 통제가 시작되어 2000년경까지 이루어졌다. 지류가 만나는 지역에 형성된 범람원은 농경지에서 주택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전주천은 전주시의 북서방향으로의 지역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주 지역에서 전주천의 유로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과거유로의 추정노선의 적절성과 전주천의 유로변화를 통일신라시대 이후 특히 후백제 시대의 전주 역사에서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전주의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은 지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까지 범람원 등의 전주천 유역 개발은 전주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지점의 매물 퇴적층 분석을 근거로 구시가지 전체의 퇴적층서를 추정한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익산박물관, 2022, 「전북의 고대성곽」.
국립전주박물관, 2016, 「전주 인봉지 시굴조사 보고서」(부록: 후백제 도성벽 조사보고서), 185-225.
김주성, 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79-105.
유병하·나병호, 2015, 「궁예도성과 견훤도성」 신호철 등 편, 「대의관계로 본 후백제」, 서울: 공감, 95-138.
이경찬, 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전주역사박물관 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 신아출판사, 45-103.
이정덕·조대연·김미숙·조성실·이의민·우진영·김미라·강은향, 2021, 「전북의 옛길 I」, 서울: 신아출판사.

장호, 1981, 「전주시가 매물퇴적층의 퇴적환경과 퇴적시기」 사대논문집, 7, 63-69.
전영래, 1980, 「전주 동고산성개괄조사보고」(전북유적조사보고, 제11호), 전주시립박물관.
전영래, 2001, 「후백제와 전주」 전북전문문화연구소 편,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서울: 도서출판 주류성, 11-50.
전주문화원, 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전주: 신아출판사.
전주시, 1986, 「전주시사」.
조성욱, 2021, 「전주 덕진연못의 용도 및 축조시기와 장소성 변화」 한국지리학회지, 10(1), 91-105.
최홍선, 2016, 「후백제 도성 신자료 소개」 동원학술논문집, 17, 76-91.
최홍선, 2021, 「고토성으로 본 후백제 전주도성 일고찰」 강봉룡 등 편, 「후백제와 견훤」, 서울: 서경문화사, 151-183.
「完山誌(완산지)」, 광무 9년(1905), 2권(卷) 1책(冊),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2271: M/F74-102-10-C), 디지털 장서각(전주시·전주문화원, 2009, 「(完譯) 完山誌」).
「全州府史(전주부사)」, 1943(昭和 18年), 鮮光印刷株式會社(홍성덕·김철배·박현석 역, 2014,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鄭樞(정추), 1418, 「원재집(圓齋集)」(2권).
Huggett, R. J., 2011, Fundamentals of Geomorphology (Third Edition), Routledge(윤순옥 외 10인 옮김, 2014, 「지형학 원리(제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Kakaomap, <http://map.kakao.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jb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22일
게재확정일: 2025년 5월 27일